



백남포의 투병기 “봄은 다시 온다”를 다시 읽고

글 김대규(대한결핵협회 고문)

40년만의 소식

보건세계 금년 1월 호에 연재물인 결핵 인물열전 “무지 앞에 좌절한 비운의 결핵인 백남포”라는 글을 썼는데 얼마 후 백남포 씨의 장남이라며 전화가 걸려왔다. 그 글을 읽고 너무 고마워서 수소문 끝에 전화를 했으며 1962년 소식이 두절된 이후의 부친의 행적과 가족 상황을 알려 주면서 그때 자기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지금은 60대가 되었다고 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어서 너무 반갑고 고맙았다.

백남포는 무지한 주민들의 난동과 파괴로 꿈을 접어야 했던 비극적인 사연과 한을 가슴에 안은 채 1962년 홀연히 사라지고 말았기에 그 후의 소식과 생사 여부는 늘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다.

필자가 백남포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1957년 그가 백양원을 건립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필자는 그때 그의 투병역정과 요양원 설립에 대한 불굴의 신념과 정

열에 크게 감동하여 힘닿는 데까지 그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먼저 결핵협회에 그와 백양원을 소개하고 백양원에는 임원들과 함께 여러 차례 가서 조안을 하고 격려를 하기도 했는데 연발한 주민들의 반대 난동에는 어떠한 무마의 노력도 소용없었다.

그 무렵 글재주가 좋은 그는 투병기를 썼는데 출판사를 소개해 달라기에 쾌히 응락하고 친구인 이범준 시인이 운영하는 신흥출판사에 부탁해서 1958년 9월 15일 그의 투병기 「봄은 다시 온다」를 발행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책을 한 부도 보관하지 못해서 지난 번에는 간단히 언급만 했는데 필자의 간청으로 그의 장남 석기 씨가 몇 장의 사진과 함께 보내준 그 책을 다시 접하니 실로 감개 무량했다.

국가 결핵 시책의 방향을 제시

「봄은 다시 온다」는 국립마산요양소를 찾아갔다가 가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고

돌아설 때의 절망, 각혈로 점철된 파란만장한 10여 년의 투병 끝에 마침내 건강을 되찾은 희망과 환희의 생생한 기록이다.

몇 개월간 통원 치료하면서 단기 화학요법으로 완치되는 요즘 결핵환자들은 상상도 못할 고난의 기록이지만 당시의 시대 상황과 의료의 수준, 환자의 실상을 알 수 있는 고전적 가치가 있는 책자이다.

책 내용은 다음과 같이 5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제 1장 나의 투병기, 제 2장 요양우고(지침), 제 3장 폐결핵퇴치에 대한 나의 방안, 제 4장 그밖에 부탁할 말, 제 5장 꿈은 드디어 실현단계에.

다시 이 책을 읽으면서 새삼 놀란 것은 국가결핵대책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성찰과 앞날을 내다 본 정확한 방안 제시이다. 그는 이 책에서 우리나라 결핵퇴치 방안으로서 다음 사항을 주창했다.

1. 보건교육의 획기적 실시
2. 계몽운동의 조직적 전개
3. 결핵요원의 특전적 양성
4. 예방(BCG)의 의무적 실시
5. 1시군 1원의 요양원 설립
6. 사설요양원과 기관별 요양원 설립 중용
7. 결핵의약품의 국내 생산
8. 결핵예방법 제정

5항과 6항의 요양원 설립을 제외하면 1962년도부터 정부가 시행한 국가결핵관리시책과 일치된다. 그는 결핵전문 의도 아니고 결핵정책을 다루는 행정가도 아니



백남포(사진 위) 씨는 아내와 동생을 결핵으로 잃고 본인도 결핵을 앓은 것이 동기가 되어 때마침 626동란으로 결핵이 창궐하고 결핵병상이 턱없이 부족하던 절박한 시절에 사재를 털어 경남 구포(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에 백양원(白羊園)이라는 사설 요양원을 설립한 독지가였다

었는데 1950년대 말에 우리나라 결핵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정확한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요양원 설립은 수년 후의 국가 결핵관리 체계의 외래 통원치료 정책에는 어긋나지만 WHO의 권고로 그것이 도입되기 전에는 결핵병상 확충이 결핵대책의 절실한 과제로 인식되었던 게 사실이다.

결핵 계몽과 보건교육은 결핵협회의 주력사업으로 추진되어 왔고, BCG의 의무 접종은 정착되었으며 결핵예방법은 제정 시행중에 있다. 잘 훈련된 결핵요원은 국가 결핵관리에 큰 기여를 함으로써 그가 주창한 사항들은 거의 이루어졌다.

또 하나 특기할 일은 1956년 12월 국회



백양원을 방문한 결핵협회 관계자 오른쪽부터 이찬세 부산대의대 교수 겸 결핵협회이사, 필자, 이완영 국립신생결핵요양소장, 백남포(1958 1 15)

(민의원)에 결핵예산을 늘여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한 일이다. 그는 스스로 결핵을 이겨낸 것에 만족하지 않고 글로 동변자들을 격려했으며, 국가결핵대책에 대한 정확한 식견과 앞을 내다보는 혜안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에 호소하고 국회에 까지 행동 반경을 넓혀 간 철두철미하게 행동하는 결핵인이었다.

1962년 이후에는

장남 철기 씨에 의하면 백남포 씨는 1962년 결핵협회와 연락을 끊은 후 1964년 백양원 부지를 완전히 처분하고 이듬해 대한측량협회 창립에 참여하여 사무국장으로 일했으며 1968년에는 한로도시건

설공사 전무로 근무하다가 1971년부터는 서예에 전념했다. 1977년에는 미술대전에 특선으로 입상했으며 1978년 서실 청가현(靑可軒)을 개원하여 서예와 제자 양성에 정진했다.

1979년 서울대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80년 12월 7일 남양주군 인창리 장남 집에서 59세의 일기로 타계했으며 유해는 경기도 고양시 동패리 기독교 공원묘지에 안장되었다 한다.

유족으로는 부인 하정희 여사(77세)가 현재 부산에 살고 있고, 자녀는 장남 철기, 차남 호기, 고명딸 윤숙이 있으며, 3남 윤기는 아르헨티나로 이민 갔는데 그곳에서 병사했다고 한다. ¶